

완도 소안도 해수욕장 쓰레기 ‘몸살’

페스티로폼·비닐·그물 등 넘쳐나

다도해 해상사무소 관할 평계 방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구인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소안도 해수욕장이 바다에서 밀려 온 각종 산업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사무소는 해상 쓰레기는 자신들의 관리 업무가 아니라며 방관하고 있어 피서철 섬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의 눈살을 채우고 하게 있다.

25일 소안도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소안도 해수욕장 백사장이 바다에서 밀려 온 페스티로폼과 비닐, 그물 등 산업 쓰레기는 물론 음식물로 넘쳐나면서 해수욕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을 정도라는 것.

소안도 해수욕장은 형형색색의 크고 작은 자갈로 이루어진 데다 백사장 뒷편으로는 소나무, 후박나무 등



완도 소안도 해수욕장 백사장이 쓰레기로 뒤덮혀 있지만 그대로 방치돼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방풍림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곳이다.

또한 완도군의 지원을 받은 주민들이 페스티로폼으로 만들어 운영하면서부터는 피서철이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다도해 국립공원 관리를 맡고 있는 다도해해상사무소는 백사장에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소안도를 찾은 관광객 정모(여·41·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해수욕장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쓰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며 “좋다는 말은 듣고 찾아 왔는데 쓰레기 때문에 피서를 망쳤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 김보(58)씨는 “다도해해상사무소가 연간 수억 원의 쓰레기 처리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방치하고 있다”며 “쓰레기 처리비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도해해상사무소측은

수업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2013년까지 IPTV 공부방을 도내 전 지역아동센터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송영철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IPTV 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는 현재 353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9997여명의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광주일보=정은조기자 ejchung@

22개 시·군 17만8752ha…작년비 9000여ha 감소

밭 벼 재배 면적에 농지전용·휴경면적 늘어난 탓

올해 전남도내 벼 재배면적이 지난 해보다 9000여ha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벼 재배면적을 조사한 결과 총 17만8752ha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8만7533ha보다 8781ha가 줄어든 것으로 이중 논 벼는 지난해 18만3358ha 보다 5459ha가 감

소된 17만7900ha, 밭벼는 지난해 4175ha보다 3322ha가 줄어든 852ha다.

벼 재배 면적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논벼보다 미질이 떨어지는 밭벼 재배를 억제하고 농지전용과 휴경 면적에 1839ha에 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쌀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논에 타 작물 전환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쌀 생산용으로 재배 중인 벼를 가축 조사료용으로 전환하면 ha당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말까지 ‘벼 사료용 전환 신청’을 받을 계획이어서 올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가축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생산 농가와 축산농가의 소득, 경영 안정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쌀 생산 조정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국 비빔밥 잘 비볐죠”

‘제10회 여수 국제청소년축제’에 참가한 각국 청소년들이 25일 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31일간 열린 이번 축제에는 40여개국에 서 7만여명이 참가해 한국문화 체험 등을 통해 우호를 다졌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인터넷TV로 도서 벼지 교육质 높인다

22개 지역 IPTV 공부방 개소 공식 운영

전남지역에 청소년 교육을 위한 IPTV(인터넷TV) 공부방이 들어선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도서 벼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기기 제공을 위해 최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등과 함께

IPTV 공부방 개소식을 갖고 22개 지역아동센터에 시범 설치한 IPTV 공부방의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사업자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학습교사를 지원하며 삼성전자는 텔미디어 교육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사구(砂丘)보호 당연하지만…”

우이도 출입금지 5년 연장에 주민들 반발

피서철 반반 경기가 사라지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휴가철을 앞두고 사구 출입금지 기간 연장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서객이 밭길을 돌려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우이도 주민 이모(56)씨는 “이달 출입금지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는

데 다도해 서부사무소가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기간을 연장해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 했다.

다도해 서부사무소도 주민들의 반발과 빗발치는 전화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사무소 관계자는 “일부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사

구 식물을 고사시키거나 사구 내 모래 이동량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출입통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인데 불통이 엉뚱한 곳으로 뒤워 있다”며 “사구 출입은 할 수 있지만, 바다 쪽 탐방로를 따라 사구의 비경은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이도 사구는 해발 고도 100m, 폭(밀쪽) 20m, 경사 33도 규모의 동양 최대 풍성 사구로,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로 탐방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양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절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율해 팔아드리겠습니다.

FAX 223-1772 휴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증, 대인동 소방서건내란)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위치	면적(평)	율도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상업	1,100만원
(500)			
상무지구	2,247㎡	상업	1,200만원
(880)			
상무지구	826㎡	상업	1,000만원
(250)			
상무지구	3,422	임무	800만원
(1,135평)			
동신동	(22,000평)	전답	10만원
나주신평	(15,300평)	조경	35만원
동림동	4,469㎡	준주거	350만원
(1,352)			

부동산 토지매매

부동산 토지매매